

# 재난정보 플랫폼의 다변화와 저널리즘의 역할

---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14:00~17:00

**장소**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 (유튜브 중계병행)

**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후원**  뉴스통신진흥회  
Korea News Agency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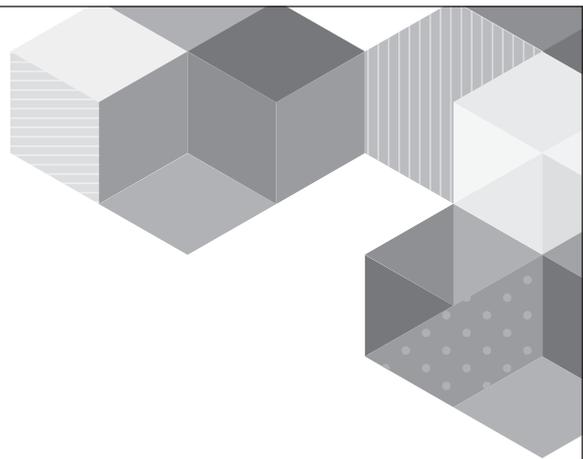
# 「재난정보 플랫폼의 다변화와 저널리즘의 역할」 세미나

-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14:00~17:00
- 장소 :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 (유튜브 중계병행)
- 주최 :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Studies
- 후원 :  뉴스통신진흥회  
Korea News Agency Commission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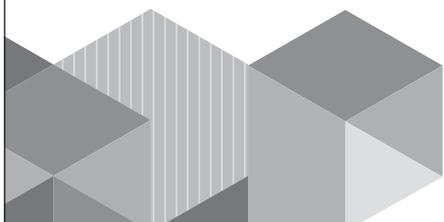
시간	내용
14:00~14:10	<b>개회사</b> : 이경숙(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사회 : 박은희(대진대)
1부 14:10~15:10	<b>[발제1]</b> 재난정보 생산·유통의 전통적 주체로서의 언론 보도행태 - 표시영(강원대) <b>[발제2]</b> 재난정보와 소셜미디어: 자아 불확실성의 해소를 중심으로 - 김진희(포스텍) · 서미혜(성균관대) · 김용찬(연세대) <b>[발제3]</b> 바람직한 재난위기 관리를 위한 재난정보 생산·유통 방안 -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
15:10~15:30	휴 식
2부 15:30~17:00	<b>[종합토론]</b> - 박영흠(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근영(한겨레신문) - 이은정(KBS) - 이재영(연합뉴스) - 임인재(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17:00	폐 회





# 재난정보 생산·유통의 전통적 주체로서의 언론 보도행태

표시영(강원대)





2022.10.2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뉴스통신진흥회 후원 <재난정보 플랫폼의 다변화와 저널리즘의 역할>

## 재난정보 생산·유통의 전통적인 주체로서의 언론의 보도행태



표시영(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문제제기

- 장기간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재난 상황에서 **양질의 정보 전달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
  - 감염병 발생 초기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정지영·표시영, 2021)
  - 일부 확진자(집단)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이를 접한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혐오를 조장(표시영·정지영, 2021)
  - 감염병 전파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씌우는 **'책임 귀인 프레임'**의 증가(표시영, 2020)
  - 현 정부에 대한 과도한 책임 프레임은 신문의 정파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했음(박주현, 2020; 표시영, 2021)

## 문제제기

- 감염병과 같이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의 경우, 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함
  - **구성주의적 관점**: 공중이 인식하는 현실은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음(Bennett, 1982), **보도 프레임(frame)의 영향력**
  - 더욱이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는 다양해졌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시영·정지영, 2021)
  - 따라서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재난정보의 품질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연구목적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재난정보에 대한 프레임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뤄져 왔음 (김영옥·안현의·함승경, 2015; 김종화·유홍식, 2012; 김창숙·홍원식, 2021; 박주현, 2020; 오해정·최지향, 2019; 최민음·정희수, 2018; 표시영, 2020; 2021)
  -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재난 보도에 대한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병 보도준칙의 경우 2020년 이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재난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 따라서 재난정보 생산·유통의 전통적 주체인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이를 통해 공중에게 보다 나은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신뢰받는 언론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음

## 연구설계

### 1. 연구문제

- 1) 연구문제1: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의 **'유형 및 형식'**은 어떠한가?
- 2) 연구문제2: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 3) 연구문제3: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 헤드라인의 특징'**은 어떠한가?

### 2. 분석대상, 키워드, 시기, 방법

- 1) 분석 대상
  - 지상파 3사(KBS, MBC, SBS), 주요 일간지 5종(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 2) 분석 키워드
  - **원숭이두창**: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로, 코로나 보도 자체가 이전보다 많지 않으며 대체로 확진자 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유형이 많음. 원숭이두창은 감염경로나 그 특성에 있어 일반 감염병보다 예민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재난 보도의 품질 관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 연구설계

### 3) 분석 시기 및 방법

- 분석 시기: 원숭이두창이 발병하고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5.19~6.1)**
- 분석 방법: 빅카인즈에서 검색어 '원숭이두창 or 원숭이 두창 or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or Monkeypox'를 넣어 지상파 3사와 주요 일간지 5종의 보도를 수집, 총 167건이 수집되었으며, 이중 서로 중복되는 보도를 제외한 결과 **총 136건**의 보도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

### 3. 분석유목

- 분석유목은 기존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
- ① 연구문제1: **유형 프레임, 형식 프레임, 내용 프레임, 병변 사진 유무**
- ② 연구문제2: **보도 관점, 기자 전문성, 정보원**
- ③ 연구문제3: **헤드라인 내 따옴표 사용 유무, 헤드라인 프레임**
- ✓ 유형, 형식, 내용 프레임과 보도 관점, 기자 전문성, 정보원은 김영옥 외3(2015), 이건호와 정완규(2009), 표시영(2020; 2021)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춰 재구성 하였으며, 헤드라인 프레임은 김미형(2003)의 과장 양상에 따른 분류와 손달임(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여기에 더해 보도 내 자극적인 병변의 사진 유무를 추가로 살펴보았음

## 연구설계

### 1) 유형 및 형식 프레임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유형 프레임	스트레이트 보도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프레임
	기획/심층 보도	보다 심층적으로 사건을 취재한 프레임
	인터뷰	취재 대상의 인터뷰 내용이 주가 되는 프레임
	리포/현장 보도	현장에 나가 직접 취재하며 보도하는 프레임
형식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사건의 발생을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는 피상적인 단순보도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쟁점 사항에 대해 다루면서 원인, 영향, 대책, 한계 중에 최소 둘 이상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프레임

## 연구설계

### 2) 내용 프레임

소분류	세부내용	
주제적 프레임	쟁점 사항에 대해 다루면서 원인, 영향, 대책, 한계 중에 최소 둘 이상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프레임	
갈등 강조 프레임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집단 간 충돌 및 갈등을 강조하는 보도	
책임 귀인 프레임	정부	원숭이두창과 관련하여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책임 소재의 초점을 정부, 확진자,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맞춘 보도
	확진자	
	특정 국가, 집단	
공포 불안 프레임	건강상의 위협이나 사회적 위협을 극도로 강조하여 공포, 불안을 야기시키는 보도	
정보 및 상황 전달 프레임	질병 관련 정보 (원인, 감염 현황 등)	원숭이두창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원인, 현황, 특성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
	대처, 대응 방안 관련 정보	원숭이두창과 관련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처,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

---



---



---



---

## 연구설계

### 3) 보도 관점, 기자 전문성, 정보원

관점	단일 관점	한쪽의 입장만 나오거나, 한쪽 입장이 2/3 이상인 보도 (다른 쪽은 일시적으로 언급)
	복합적 관점	양쪽의 의견이 균등하게 나온 보도, 혹은 하나의 견해가 기사의 2/3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보도

기자 전문성	일반 기자
	의학전문 기자
	특파원

정보원	국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정부 및 지자체
	국내 의료진
	해외 의료진
	국내 전문가
	해외 전문가
	국내 다른 언론
	해외 언론
	국제기구
	일반시민
	관련시민
	사회 단체
	유명인
	기타
	정보원 없음

## 연구설계

### 4) 헤드라인 프레임

공포 및 불안감 조성 표현	극대화	정도성의 최고 지점의 크기로 일이나 사건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것
	확대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보다 크게 표현하는 것
	축소화	실제가 적다고 말하기 위해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
	과일반화	한두 상황이 그런 것을 두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으로 확대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
	대비화	한쪽을 대조와 비교를 사용하여 다른 한쪽을 강조하는 것
혐오 조성/구별 짓기	혐오를 조성하거나 특정 개인 및 집단을 구별 짓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



---



---



---

## 연구결과: 언론사별 보도량

### 1. 언론사별 보도량

분석 대상	N	%
KBS	18	13.2
MBC	20	14.7
SBS	11	8.1
중앙	28	20.6
동아	17	12.5
조선	17	12.5
한겨레	10	7.4
경향	15	11.0
합계	136	100.0

- 전체 분석 대상 기사는 **136건**으로 지상파가 49건, 종편이 87건임
- 천제 채널 중 **중앙일보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겨레가 10건**으로 가장 적었음.
- 지상파 채널 중에서는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11건**으로 가장 적었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1

### 2. 유형 및 형식 프레임

#### ① 전체 분석 대상

대분류	소분류	N	%
유형 프레임	스트레이트 보도	107	78.7
	기획/심층 보도	24	17.6
	인터뷰	2	1.5
	리포/현장 보도	3	2.2
합계		136	100.0
형식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75	55.1
	주제적 프레임	61	44.9
합계		136	100.0

- 유형 프레임에서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7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많은 보도들이 원숭이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었음. 하지만 **기획/심층 보도도 17.6%**로, 특히 국내 전문가와 감염병 정보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많았음
- 형식 프레임은 **일화적 프레임이 55.1%**, **주제적 프레임이 44.9%**로 비교적 **균등하게** 보도가 되었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1

### ㉔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대분류	소분류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유형 프레임	스트레이트 보도	16(88.8)	18(90)	10(90.9)	21(75)	13(76.5)	12(70.6)	5(50)	12(80)
	기획/심층 보도	-	2(10)	1(9.1)	7(25)	3(17.6)	4(23.5)	<b>4(40)</b>	3(20)
	인터뷰	2(11.1)	-	-	-	-	-	-	-
	르포/현장 보도	-	-	-	-	1(5.9)	1(5.9)	1(10)	-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형식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b>15(83.3)</b>	<b>12(60)</b>	6(54.5)	16(57.1)	9(52.9)	9(52.9)	4(40)	4(26.7)
	주제적 프레임	3(16.7)	8(40)	5(45.5)	12(42.9)	8(47.1)	8(47.1)	<b>6(60)</b>	<b>11(73.3)</b>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유형 프레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채널이 스트레이트 보도가 많았는데, 지상파 방송이 주요 일간지보다 스트레이트 보도 유형이 더 많았음. 기획/심층 보도는 한겨레가 가장 많았고(40%), 중앙일보도 25%로의 비중으로 적지 않았음
- 형식 프레임에서도 지상파가 주요 일간지보다 일화적 프레임 비중이 높았고, 특히 그중에서 KBS가 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주제적 프레임의 비중이 각각 60%와 73.3%의 비율로 높았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1

### 3. 내용 프레임

#### ㉕ 전체 분석 대상

대분류	소분류	N	%
갈등 강조 프레임		2	1.5
책임 귀인 프레임	확진자	<b>8</b>	<b>5.9</b>
	특정 국가, 집단	2	1.5
공포 불안 프레임		<b>7</b>	<b>5.1</b>
정보 및 상황 전달 프레임	질병 관련 정보 (원인, 감염 현황 등)	<b>66</b>	<b>48.5</b>
	대처, 대응 방안 관련 정보	<b>51</b>	<b>37.5</b>
합계		136	100.0

- 내용 프레임은 정보 및 상황 전달 프레임이 80%가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질병 관련 정보가, 후기로 갈수록 대처 혹은 대응 방안 관련 정보가 주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문제성 프레임도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 확진자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이 5.9%로 가장 많았고, 공포 불안 프레임이 5.1%로 뒤를 이었음. 코로나 보도에서 발견되었던 특정 국가(중국) 혹은 정부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1

### ㉔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대분류	소분류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갈등 강조 프레임		-	-	-	-	-	-	-	2(13.3)
책임 귀인 프레임	확진자	-	-	-	2(7.1)	2(11.8)	2(11.8)	1(10)	1(6.7)
	특정 국가, 집단	-	-	-	1(3.6)	-	1(5.9)	-	-
공포 불안 프레임		-	1(5)	1(9.1)	3(10.7)	-	2(11.8)	-	-
정보 및 상황 전달 프레임	질병 관련 정보 (원인, 감염 현황 등)	6(33.3)	9(45)	5(45.5)	14(50)	7(41.2)	10(58.8)	6(60)	9(60)
	대처, 대응 방안 관련 정보	12(66.7)	10(50)	5(45.5)	8(28.6)	8(47.1)	2(11.8)	3(30)	3(20)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내용 프레임 중 갈등 강조, 책임 귀인, 공포 불안 등 문제성 프레임을 중심으로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간 차이가 발견되었음. 우선 지상파의 경우 오직 공포 불안 프레임만 MBC와 SBS에서 한 건씩 발견되었는데, 주요 일간지에서는 문제성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21.4%와 29.5%를 나타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두 매체 모두 확진자인 성소수자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책임 귀인 프레임과 공포 불안 프레임이 관찰됐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1

### 4. 감염병 사진

#### ㉑ 전체 분석 대상

병변 사진	N	%
사진 有	84	61.8
사진 無	52	38.2
합계	136	100.0

- 60%가 넘는 보도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원숭이두창 감염병 사진(물집이 가득 잡힌 몸과 손)을 함께 보도하고 있었음. 병변 사진이 필요하지 않은 보도는 물론이고 (대처 및 대응 방안 관련 보도), 확진자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이나 공포 불안 프레임에서도 이러한 사진을 함께 내보내어 확진자에게 대한 혐오와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㉒ 지상파와 주요일간지

병변 사진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사진 有	11(61.1)	13(65)	8(72.7)	18(64.3)	7(41.2)	12(70.6)	5(50)	10(66.7)
사진 無	7(38.9)	7(35)	3(27.3)	10(35.7)	10(58.8)	5(29.4)	5(50)	5(33.3)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채널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BS(72.2%), 조선일보(70.6%), 경향신문(66.7%) 순으로 특히 높았고 동아일보가 41.2%로 가장 낮았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2

### 5. 보도 관점, 기자 전문성

#### ① 전체 분석 대상

대분류	소분류	N	%
관점	단일 관점	80	58.8
	복합적 관점	56	41.2
합계		136	100.0
기자 전문성	의학전문 기자	7	5.1
	일반 기자	119	87.5
	특파원	10	7.4
합계		136	100.0

- 보도의 관점은 **단일 관점이 58.8%**, **복합적 관점이 41.2%**로 균형 있는 보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학전문 기자의 비중은 턱없이 부족했음**. 의학전문 기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하였고 87.5%가 일반 기자였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2

#### ② 지상파와 주요일간지

대분류	소분류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관점	단일 관점	17(94.4)	12(60)	3(27.3)	16(57.1)	8(47.1)	12(70.6)	5(50)	7(46.7)
	복합적 관점	1(5.6)	8(40)	8(72.7)	12(42.9)	9(52.9)	5(29.4)	5(50)	8(53.3)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기자 전문성	의학전문 기자	-	1(5)	2(18.2)	-	-	3(17.6)	1(10)	-
	일반 기자	17(94.4)	18(90)	9(81.8)	28(100)	11(64.7)	12(70.6)	9(90)	15(100)
	특파원	1(5.6)	1(5)	-	-	6(35.3)	2(11.8)	-	-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보도 관점에서 **단일 관점은 KBS가 9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선일보(70.6%)**, **MBC(60%)**, **중앙일보(57.1%)**, **한겨레(50%)** 순이었음. 반면 **복합적 관점은 SBS가 72.7%**로 가장 높아 지상파 안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음. MBC,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단일 관점과 복합적 관점이 비교적 균형 있게 보도되었다면 KBS, SBS, 조선일보는 하나의 관점이 지배적이었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2

### 6. 정보원

#### ① 전체 분석 대상

- 원송이두창의 경우 (분석시기에) 국내 감염자가 없었고 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보원 역시 WHO(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해외 정부 및 지자체, 해외 전문가, 해외 언론 등이 많았음.
- 국내에서는 국내 정부 및 지자체(질병청)가 21.5%가 높은 비중을 나타냄

소분류	N	%
국내 정부 및 지자체	58	21.5
해외 정부 및 지자체	26	9.6
국내 의료진	1	0.4
해외 의료진	6	2.2
국내 전문가	15	5.6
해외 전문가	29	10.7
해외 언론	39	14.4
국제기구	67	32.2
일반시민	1	0.4
(관련/일반) 사회 단체	2	0.7
유명인/인플루언서	2	0.7
기타(제약회사 등)	3	1.1
정보원 없음	1	0.4
합계	270	100

## 연구결과: 연구문제 2

#### ②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 정보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았고, 국내에서는 국내 정부 및 지자체가 가장 높은 비중이 있음. 이는 대체로 모든 채널이 비슷했음.

분류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국내 정부 및 지자체	12(42.9)	8(21.6)	5(25)	11(18)	7(24.1)	4(10.3)	5(25)	6(16.7)
해외 정부 및 지자체	3(10.7)	3(8.1)	1(5)	5(8.2)	4(13.8)	3(7.7)	-	7(19.4)
국내 의료진	-	-	-	-	-	-	-	1(2.8)
해외 의료진	-	3(8.1)	-	1(1.6)	1(3.4)	1(2.6)	-	-
국내 전문가	3(10.7)	2(5.4)	1(5)	5(8.2)	1(3.4)	1(2.6)	1(5)	1(2.8)
해외 전문가	3(10.7)	4(10.8)	4(20)	6(9.8)	-	7(17.9)	2(10)	3(8.3)
해외 언론	-	3(8.1)	2(10)	12(19.7)	6(20.7)	6(15.4)	5(25)	5(13.9)
국제기구	7(25)	14(37.8)	7(35)	18(29.5)	10(34.5)	13(33.3)	6(30)	12(33.3)
일반시민	-	-	-	-	-	1(2.6)	-	-
(관련/일반) 사회 단체	-	-	-	1(1.6)	-	-	-	1(2.8)
유명인/인플루언서	-	-	-	1(1.6)	-	1(2.6)	-	-
기타(제약회사 등)	-	-	-	1(1.6)	-	2(5.1)	-	-
정보원 없음	-	-	-	-	-	-	1(5)	-
합계	28(100)	37(100)	20(100)	61(100)	29(100)	39(100)	20(100)	36(100)

## 연구결과: 연구문제 3

### 7. 헤드라인 따옴표

#### ① 전체 분석 대상

따옴표 유/무	N	%
따옴표 有	81	59.6
따옴표 無	55	40.4
합계	136	100.0

- 기사 헤드라인의 경우 60%에 가까운 헤드라인에서 특정 단어나 특정 정보원의 발언을 따옴표로 강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②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따옴표 유/무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따옴표 有	5(27.8)	15(75)	5(45.5)	18(64.3)	14(82.4)	9(52.9)	6(60)	9(60)
따옴표 無	13(72.2)	5(25)	6(54.5)	10(35.7)	3(17.6)	8(47.1)	4(40)	6(40)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채널별로 살펴본 결과, 그중에서도 **동아일보가 82.4%**로 대부분의 보도 헤드라인에 따옴표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KBS는 72.2%, SBS는 54.4%**의 보도가 헤드라인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일간지와 차이를 보였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3

### 8. 헤드라인 프레임

#### ① 전체 분석 대상

대분류	소분류	N	%
공포 및 불안감 조성 표현	확대화	30	22.1
	대비화	8	5.9
혐오 조성 / 구별 짓기		10	7.4
일반적인 프레임		88	64.7
합계		136	100.0

- 헤드라인은 무려 **35.4%**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됐음.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확대화가 2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밖에도 한쪽을 대조와 비교하여 강조하는 **대비화가 5.9%, 혐오를 조성하고 특정 대상 및 집단을 구별 짓는 표현이 7.4%**를 차지하였음

## 연구결과: 연구문제 3

### ㉔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대분류	소분류	KBS	MBC	SBS	중앙	동아	조선	한겨레	경향
공포 및 불안감 조성 표현	확대화	1(5.6)	7(35)	3(27.3)	7(25)	6(35.3)	3(17.6)	1(10)	2(13.3)
	대비화	-	-	-	2(7.1)	2(11.8)	4(23.5)	-	-
혐오 조성 / 구별 짓기		-	-	-	5(17.9)	-	4(23.5)	-	1(6.7)
일반적인 프레임		17(94.4)	13(65)	8(72.7)	14(50)	9(52.9)	6(35.3)	9(90)	12(80)
합계		18(100)	20(100)	11(100)	28(100)	17(100)	17(100)	10(100)	15(100)

- 채널별로 살펴본 결과 공포 및 불안감 조성 표현은 주로 **확대화를 위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아일보가 35.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MBC(35%), SBS(27.3%), 중앙일보(25%), 조선일보(17.6%), 경향신문(13.3%), 한겨레(10%), KBS(5.6%)** 순이었음.
- 이 외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대비화 프레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혐오를 조성하고 구별을 짓는 프레임이 관찰되기도 했음

## 결론 및 논의

- **유형, 형식, 내용 프레임에서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간 차이가 나타났음.** 우선 감염병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와 일화적 프레임의 비중이 지상파 방송사가 주요 일간지보다 조금 더 높았음. 주요 일간지 중 특히 한겨레의 경우 분석적으로 보도하는 비중이 높았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보도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 문제성 보도에서 지상파와 주요 일간지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지상파의 경우 오직 '공포 불안 프레임'만 MBC와 SBS에서 한 건씩 발견되었는데 주요 일간지, 특히 그 중에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전체 보도 중 각각 21.4%와 29.5%의 비중으로 문제성 보도가 나타남**
- 문제성 보도의 경우 기존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가령 코로나19 보도에서 다소 줄어들었던 **'공포 불안 프레임'이 다시 증가**했고, 코로나19 보도에서 많이 나타났던 '확진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 중에서는 **'확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음.** 이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처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원숭이두창의 주요 감염경로로 보도됐던 성소수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 결론 및 논의

- WHO에서 원숭이두창이 동성간 성접촉만으로 전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사의 24.4%에서 원숭이두창이 동성간 성 접촉을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 것처럼 보도를 했음. 한편 성소수자에 초점을 맞춰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보도 역시 분석 기간 동안 5건 정도 발견되었음. 나아가 문제성 보도는 주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었음
- 헤드라인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음. 많은 헤드라인이 '확대화'를 통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또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썼으며, 나아가 이를 '따옴표'를 통해 강조했음.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및 상황 전달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과장되게 표현된 기사도 왕왕 발견됐음. 헤드라인이 기사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고, 또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여전히 의학전문기자는 부족했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는 전체의 5% 미만이었음.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임으로 전문기자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관련 제도 마련이 요구됨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뉴스통신진흥회 후원 <재난정보 플랫폼의 다변화와 저널리즘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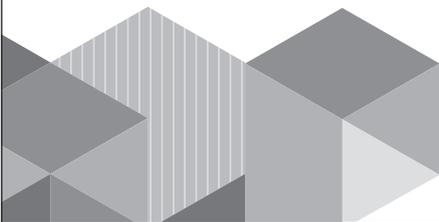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난정보와 소셜미디어 : 자아 불확실성의 해소를 중심으로

김진희(포스텍)  
서미혜(성균관대)  
김용찬(연세대)





## 재난정보와 소셜미디어 : 자아 불확실성(self-uncertainty)의 해소를 중심으로<sup>1)</sup>

김진희(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서미혜(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용찬(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태풍, 호우, 산불 등이 빈번해지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 등으로 한반도에도 지진의 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튼튼한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인프라의 구축과 확보는 재난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 작업이다(Kim & Kang, 2010). 재난주관 방송으로서 KBS가 365일 24시간 재난전문채널을 준비하고 있고, 기성언론이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시청자 제보를 포함한 라이브 방송을 부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기반의 언론시스템에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재난의 영향력이 상이한 모든 곳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스스로가 재난정보의 소통에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는 필수적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모바일 기반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비공식 채널(back channel)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Palen & Hughes, 2018). 급박한 상황에서의 실시간 재난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연대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당시 관련 트윗은 18시간 내 약 100만 건으로 집계됐다(차현아, 2019). 당시 트위터는 산불 현황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대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주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했다. 물론 이용자 스스로 만들어낸 메시지들은 언론사 내의 게이트키퍼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진실성에 취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소셜미디어의 활약은 여러 재난의 유형에서 보고되고 있다.

1) 본 발제문은 명기된 세 명의 연구자들이 출판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진 재난 연구 프로젝트를 저널리즘 시각으로 구성했음을 밝힌다. 본문의 따옴표는 연구진들의 포항 지역민 인터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프로젝트의 기출판된 혹은 출판 예정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진희·서미혜·김용찬(2020). 포항지진과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의존. 김기흥·김진희·김철식·정채연 편. 『포항지진 그 후: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221-263쪽). 나남. 김진희·서미혜·김용찬(2021). 포스트-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관여.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95-333. 김진희·서미혜·김용찬(2022, 근간). 지진 재난 속 여성 돌봄자들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이용과 연대. 이동후 편. 『디지털 미디어 소비와 젠더』(465-519쪽). 커뮤니케이션북스.

재난의 영향력이 전국적이지 않고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때 혹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페이스북의 그룹,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 밴드, 단톡방 등 ‘지역 기반(localized)’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Kim & Shin, 2016). 기존에 튼튼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이미 갖춘 지역 혹은 규모가 큰 재난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지역(예: 경주, 포항 등)은 좀 더 유기적으로 재난민 스스로가 ‘실시간 시민 특파원’ 혹은 ‘실시간 시민 기자’가 되어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집단 규범을 자체적으로 형성했음이 관찰된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예측불허 재난의 경우, 전통매체에서 수집, 생산, 유통하는 정보는 이미 과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모여들어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실시간 연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재난정보 영역에서 부각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의 기술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의 비수도권 도시에 집중된 재난에 초점을 둔다. 즉, 왜 재난민들이 기성뉴스를 외면하고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에 모여들어 상호작용하며 해당 미디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를 질문하고,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집단 경쟁과 갈등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내가 속한 지역이라는 내집단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에서 재난민들 스스로가 생산, 유통하는 규범적 정보는 배타성과 신뢰성, 즉 파워를 획득하여(Ball-Rokeach, 1985) 그들이 겪는 극심한 자아 불확실성(self-uncertainty; Hogg, 2007; 2021)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재난민들이 겪는 불확실성은 스스로 매우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우 부정적인 주관적 경험으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

##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재난 : 자아 불확실성과 집단 이론적 시각들

본고에서는 재난이 비수도권 도시에서 집중, 발생했을 때의 재난정보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의 흐름에 대해 살핀다. 대표적으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울릉도), 2022년 태풍 힌남도(포항) 등의 재난이 있다. 갑작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재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긴다. 지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재난문자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 내가 느낀 것이 지진이 맞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방금 느낀 흔들림이 본진, 전진, 여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진앙은 어디고 어느 지역이 특히 많이 흔들렸는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 가족과 친구들은 안전한지 등이다. 불확실성은 공포나 불안감을 동반하고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누그러뜨리고자 매달리게 될까? 바로 자아(self)와 직결된 불확실성이다. 자아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

되는 독특한 개성을 갖는 나(individual self), 배우자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나(relational self), 직장이나 학교 등 내가 속한 집단 속의 나(collective self) 등이 그것이다(Brewer & Gardner, 1996). 내가 사는 지역, 특히 중소규모의 비수도권 도시에 집중된 재난은 집단 속에서 발현되는 자아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과연 안전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맞는가?”라는 의문이다.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집단(지역, 도시)이 더 이상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별되는 긍정적 차별성(positive distinctiveness)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고 여긴다. 나아가 재난 이후 거버넌스 주체들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가 속한 좀 더 포괄적인 내집단(중앙 및 지방정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며 극심한 자아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속한 도시(경주, 포항 등)는 다른 도시와 뚜렷이 구별되는 긍정적 차별성을 갖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인가?” “세상에서 이곳의 위상(status)은 어떠한가?” “이곳은 대한민국 내에서 존중받는 도시인가?” “나와 재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특히 수도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나는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봉착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재난이라는 외부 상황적 요인 때문에 겪게 되며, 자아에 커다란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도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 재난민들이 자아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중앙언론(KBS 등의 공영방송사, JTBC 등의 종편방송사, YTN 등의 뉴스 전문 채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일간지 등)의 재난 보도가 해당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통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낯선 사람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재난 관련 정보 욕구를 해소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한다(Kim et al., 2004). 특히 중앙언론의 경우, 지진 및 태풍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제공하는 등 통상 강력한 정보 권력(information power)을 갖기에 재난민들이 의존하는 매체일 수 있다(Ball-Rokeach, 1985). 그러나 해당 언론을 접하게 되었을 때, 재난민들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도시)과 그것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민들이 중앙언론의 비수도권 재난보도를 평가하는 잣대는 보도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이다. 그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절대적 보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나아가 재난 지역이나 재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소위 ‘강 건너 불구경’ 저널리즘(송수진, 20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특히 수도권(서울)이라는 가상이 준거집단(Folger & Martin, 1986)과 비교해서 내려진다. 이는 “수도권 쪽으로 태풍이 관통해도 이렇게 보도했겠는가?” 혹은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이렇게 보도했겠는가?”라는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까지 촉발하며(Roese & Olson, 1993) 비수도권 재난 보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중앙언론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다. 재난민들은 중앙언론이 재난지역을 잘 끌어안으며 재난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충실히 보도해주길 기대한다. 무

엇보다 중요하게 중앙언론의 관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등해야 한다고 여긴다. 관심이라는 긍정적 자원이 다른 한쪽(수도권)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여길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비수도권 재난민들은 집단적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감(relative group deprivation; Ellemers, 2002)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의 결과는 비수도권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unfair treatment)라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고, 재난 상황에서 시민관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1).

중앙언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지각을 촉발하는 국내의 수도권-비수도권의 범주화와 경쟁 및 갈등의 맥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수도권 재난의 경우 비교적 인구가 적은 중소규모의 도시(경주, 포항, 울릉도, 고성 등)에서 발생했다. 재난이 해당 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민들은 재난을 겪고 있는 소수의 우리(us)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그들(them)을 범주화시켜 구별 짓는다. 터너(Turner et al., 1987)가 주장한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에 따라 재난민들은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내의 유사성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들과의 차이점을 극대화하여 지각하는(meta-contrast principle) 경향이 있다.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집단 범주화는 흔히 목격된다(예: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의 생존자들; Drury, 2018).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비수도권 재난민들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들의 지리적 열세 위상(geographically peripheral group status)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집단의 갈등과 경쟁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배문규, 2021),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 이다(vs. 런던 12.5%, 도쿄 28%).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문구가 말해주듯 수도권 집중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국내의 집단별 갈등 인식 조사결과(n = 1,000)에 따르면, 75%의 응답자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크다고 답변했다(한국리서치, 2021). 이는 1년 전 조사보다 7% 증가한 수치이다. 인구에 기반한 비교적 작은 도시 규모(size) 그리고 지리적 열세(status)에 속하는 경주, 포항, 울릉도, 고성 등의 비수도권 재난민들은 ‘서울공화국’에서 자신을 일종의 사회적 소수자들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내가 속한 도시 집단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강한 자아 불확실성(self-uncertainty)을 경험하게 된다.

## 중앙언론의 재난 보도와 비수도권의 소외: 기존 연구

그렇다면 중앙언론은 재난 관련 보도에서 실제로 지방을 배제하고 소외시켰는가? 이 문제를 경험적으로 다룬 기존의 학술적 연구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 이는 아마도 지방 이슈와 언론의 문제는 ①대부분 지역언론 내에서만 주로 연구가 이뤄졌거나 ②간혹 논란이 되는 지방의 이슈를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이 얼마나 다른 분량으로 그리고 어떻게 다른 틀(framing)로 보도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런데 ②의 경우 지방배제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시각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중앙·지역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 틀(framing) 유형의 차이나 사회갈등을 다루는 언론의 중재 등 규범적 역할에 주로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예: 부안 방폐장을 보도를 다룬 나미수, 2004). 지역 언론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최현주·이강형(2008)이 주장하듯이, 지역언론 현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물게 예외적 연구도 있다. 주민이 분신자살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08년 경남 밀양 고압 송전선으로 건설 갈등을 다룬 이화연·윤순진(2013)의 연구가 그것이다.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마땅히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의제설정되어야 할 관련 이슈가 중앙언론에서 배제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나아가 주민들의 폭력과 대립 그리고 위법성 등 부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했음을 밝혀냈다(단,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예외).

중앙언론의 지방배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 외에, 비수도권 재난민들의 중앙언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반응은 기존 연구에서도 인터뷰 등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예컨대, 2007년 충남 태안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재난 피해자들은 언론에 없는 과장되고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지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박동균, 2009)<sup>2)</sup>. 2008년 경남 밀양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밀양 지역민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그들이 지각하는 중앙언론의 무관심, 단편적 보도, 사실 왜곡 등이 보고된 바 있다(이화연·윤순진, 2013). 다만, 이러한 지역민들의 부정적 나아가 차별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고하는 데 그쳤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앙언론의 비수도권 재난의 보도행태가 재난민들의 중앙언론에 대한 부정적 지각(Vallone et al., 1985)을 높여 자아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집단 이론적 틀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성언론은 어떠한가? 재난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역의 기자들이 대표성있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발로 뛰며 생생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재난민의 입장에서 이들을 내집단 정보원들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충실히 전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광고 단절 우려 등)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깊이있는 보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한선·이오현(2011, 2013)에 의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이화연·윤순진(2013)의 연구에서도 부산일보 등 지역언론의 밀양 송전탑 관련 보도에 대한 체계적 내용분석 결과, 절대적 기사량은 많지만 1,000자 미만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예: 부산일보 84.5%)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치중하여 표피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바

2) 관련 연구에서 주민들의 인터뷰를 (재)인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해당 연구에서 중앙인지 지역인지 구분하지 않음)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마치 안면도도 오염이 되어 절단이 난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p. 244)," "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여? 우리 피해자여, 왜 자꾸 태안만 가지고 이러는 거여(p. 245)," "매번 봉사자만 부각시키고 이곳 주민의 아픈 마음, 생계유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p. 245)"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있다. 지배계층의 일부일 수 있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꺼리며 지역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특히 지역 신문의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역언론의 재난정보는 재난민들의 자아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층성의 부족으로 신뢰성도 얻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인다.

##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와 자아 불확실성 누그러뜨리기

이처럼 재난 발생으로 겪게 되는 재난민들의 자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성 언론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에 모여들어 스스로 재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시민 기자’와 ‘시민 특파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예: 경주, 포항 지진 재난), 상호 간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메시지를 교환하며 일종의 운명공동체로서 ‘전우애’를 다지기도 한다. 한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항로를 헤쳐 나가면서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규범적 정보의 권력은 막강하게 작용하며, 재난민들의 자아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마이클 호그(Michael Hogg)가 제안한 불확실성-정체성 이론(uncertainty-identity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Hogg, 2007; 2021). 해당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누그러뜨리려 내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내집단에 가입하거나 혹은 이미 가입해 있는 내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탈개인화(depersionalization), 즉, 나(I)에서 우리(We)로의 심리적 전환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를 ‘우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함께 연대하며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내집단이 자아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때로는 엄격할 수도 있는 규범적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 선호된다. 이러한 집단은 대개 다른 집단과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다소 폐쇄적이며, 집단 구성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고 유사한 목적을 공유하기에 동질성이 높다(Campbell, 1958; Hamilton & Sherman, 1996). 이러한 집단에서 제시되는 강력한 규범적 정보는 자아 불확실성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안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대상의 소셜미디어(폐쇄적 온라인 집단)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 당시 대학생들이 모여들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 앞에 놓인 커다란 불확실성을 타개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의 시각적 익명성(visual anonymity)에 기반한 텍스트 중심의 소통 맥락은 자아 불확실성을 겪는 구성원들이 더욱 내집단에서 제시한 규범적 정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동조(conformity)하도록 한다. 면대면 상황과 달리 비언어적 요소들(생김새, 말투, 옷차림 등)이 모두 탈락하는 컴퓨터 매개의 소통은 집단 중심적 사고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Postmes et al., 1998; 이은주, 2008). 즉, 탈규범적 행동(예: 온라인 익명 공간에서의 욕설)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규범적 행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나와 소통하는 내집단의 다른 사람들은 독특한 개성을 갖는 한 명의 개인보다는 내집단을 대표하는 나와 유사한 사람이라고 지각한다. 시각적 익명성은 탈개인화(depersonalization)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서 더욱 ‘우리’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고 구성원들의 연대와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내용을 2017 포항지진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17 포항지진 사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5.4 규모였으며, 당해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장시켰다. 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비교적 깊지 않은 진앙 위치와 무른 토양으로 피해의 규모가 매우 컸다. 본진 이후 2년이 넘도록 1.5 이상 규모의 여진이 100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기상청, 2021). 포항시 북구 흥해 지역의 지열발전소 설립 및 가동으로 촉발된 지진으로서 여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진행되었다(김성균·이정모, 2019).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했던 재난인 지진이 포항지역, 특히 진양 근처인 포항시 북구에 집중된 것이다. 포스텍융합문제연구원(박효민, 2018)에서 지진재난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11월 포항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표 설문조사(n=500) 결과를 보면 트라우마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81%가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일상에서의 불안장애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응답자의 42%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조사 당시 대다수의 응답자인 86%가 2017년 지진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지진이 다시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여성과 북구 지역민들의 경우 더욱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양인 흥해 지역민들은 1.3 규모의 지진도 직접 몸으로 느끼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에게 관찰되었다.

수백 차례의 여진이 지속되며 지진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2년여의 기간 동안 대다수의 포항 지역민들은 자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내가 속한 포항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곳인가?”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곳인가?” “포항은 인근 부산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가깝고 그에 비해 집값도 저렴한 편이며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닌가?” 등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포항 지역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며, 포항은 더 이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는 불확실성 앞에 놓인다. 이러한 의문은 다른 집단, 특히 상위집단(superordinate group, parent group)과의 관계로 확장된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지진 재난 이후 대처이다. 특히 지진에 대한 대응에서 대피소 운영, 응급처치, 심리적 지원, 지진에 대비한 훈련, 경제적 보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

았다(박효민, 2018). 그렇다면 포항 지역민들은 지진 재난을 보도하는 중앙언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아 불확실성을 경험하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이어지는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

우선 포항 지역민들이 지각하는 중앙언론 보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다. 인터뷰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보도량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지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지속적해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평가를 또 다른 집단인 서울(수도권)과 비교해서 내린다. “서울에서 지진이 났으면 하루 종일(해당 재난을) 보도했을 것”이라는 등 서울이 아니라고 포항 지역민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지각한다. 2점대의 여진에 대해서도 “내 심장이 내려앉지만” 관련 정보는 늦게 도착한 재난 문자뿐이라는 것이다. 비수도권 도시에 집중된 재난 보도의 부재는 2020년 태풍 마이삭 강타 당시 울릉도 피해를 보도하지 않았던 중앙언론을 향해 사단법인 섬 연구소 강제운 소장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부각된 바 있다<sup>3)</sup>. “섬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울릉도는 ‘해상’일 뿐이라는 내륙중심의 보도 관행을 꼬집은 바 있었다. 재난민들은 보도의 양뿐만 아니라 보도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관련 초기연구로 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0 참고). 첫째, 앞서 언급한 ‘강 건너 불구경’식 저널리즘으로 재난민을 위한 재난방송의 부재라는 지각이다. 한동대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 마트의 물건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 포항 지역민들이 공포에 떨며 인터뷰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특히 수도권 사람들에게 사건·사고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보도에 가까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재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재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도가 아니라는 지각이다. 결국 재난민들은 “뉴스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다”라고도 여기게 된다. 둘째, 재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나의 경험이 온전히 반영된 전체 이야기(whole story)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4.2 여진 발생, 피해 없을 것으로 예상”과 같은 속보는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포항 지역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정신적 피해가 이렇게 큰데 ‘피해 없다’는 식으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보도로 여긴다. 셋째, ‘포항은 위험 도시’라는 언론의 범주화 나아가 낙인화에 따른 부정적 지각이다. 동해 먼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포항’ 지진으로 묶어 범주화, 명명하여 보도하는 중앙언론의 행태에 대해 포항 지역민들은 마치 “포항 도심이나 인근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기사를 쓴다”고 불만을 표한다. 가뜩이나 중앙언론의 포항지진 재난 묘사로 지역 위상에 대한 상징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터인데, 원치 않는 위험 도시로의 강제적 범주화로 인해 중앙언론이 마치 외집단처럼 여겨져 이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고조된다. 중앙언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지각은 결국 자아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난민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어지는 단락에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3)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해당 연구소 블로그에서 성명서를 볼 수 있다(<https://cafe.naver.com/islandnet/660>).

## 포항지역 기반 소셜미디어 ‘포항맘 놀이터’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포항지역도 여러 개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들이 있다. 주로 네이버 카페, 밴드, 페이스북 그룹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포항 전체(예: ‘포항시민 커뮤니티’) 혹은 좀 더 구체적인 행정동(예: ‘지곡스퀘어,’ ‘홍해라 흥해읍’ 등)에 기반하기도 한다. 이들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지역기반의 맘카페 혹은 육아커뮤니티이기도 한 ‘포항맘놀이터(이하 포놀)’로 2022년 10월 현재 약 11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포항 인구는 약 50만이다. 포항에 재난이 닥칠 때, 이러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는 관련 재난정보를 교류하는 장(場)으로 변한다. 일상 글을 게시했던 회원들은 각 행정동의 시민 특파원 역할을 수행하며, 실시간 소식, 사진, 동영상 등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한다. 본고에서는 포놀의 사례를 2017년 포항지진을 배경으로 소개하고자 한다(포놀 회원들의 연대에 관한 연구로 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2 참고).

포놀을 사례로 든 이유는 물론 포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도 있지만 해당 집단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 특수성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더욱 포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포놀이라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포놀은 어떠한 집단적 특수성을 갖는가? 포놀은 여타의 포항기반 소셜미디어에 비해 집단의 구조적 측면에서 높은 단일성(oneness, entitativity; Campbell, 1958; Hamilton & Sherman, 1996)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포놀은 여타의 다른 집단과의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구성원들이 동질적이다. 가입절차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서 폐쇄적 속성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모두 여성 회원이며, 대부분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다. 집단도 구조화되어 있는 편인데, 회원들은 명확한 네 등급(한 살/두 살/세 살/어른 나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 아이디도 닉네임 외에 거주하는 행정동과 생년을 포함하고 있다(예: 튼튼맘vs홍해85). 등급은 회원 아이디 옆에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제 막 포놀에 가입한 회원들은 세 살 혹은 어른 나무 회원들의 의견, 믿음,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집단 내 사회화 과정을 비교적 쉽게 거친다. 행정동(지곡/효자/홍해/문덕 등) 표시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활약을 하게 된다. 같은 포항이라도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한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가정 내 역할이 주돌봄자로 유사하여 일상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로 인식될 수 있다. 상호의존적 속성이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부각되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당근마켓 등 최근 몇 년 사이 경쟁 플랫폼 등장으로 게시글 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2년 7월 한 달 동안 게시된 글 수는 22,140개(하루 평균 약 700여 개), 댓글 수는 155,017개(하루 평균 약 5,000여 개)로 추산된다. 여타 포항기반의 일반적 온라인 커뮤니티(예: ‘포항 시민 커뮤니티’), 혹은 전국기반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예: ‘맘스 훌릭 베이비’)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집단은 포놀과 비교하여 단일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포놀은 어떻게 재난민들, 특히 가정 내 주돌봄 주체이자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엄마들(Fothergill, 1996)의 자아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포실에 모여들어 나눈 상호작용은 2년여간 지속된 지진 재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재난 이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규범적 정보이다. 지진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존배낭 준비, 대피방법 숙지, 대피장소, 이미지 훈련 등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다양한 언론 채널을 통해 확보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가정의 주돌봄주체들에게는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 예컨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꾸려야 하는 생존배낭은 세심하게 챙길 물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국내의 인터넷에서도 당시에는 쉽게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포실 내에서 베이비워터, 액상분유, 어린이용 방재 모자 등 생소할 수 있는 품목들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일본어에 능통한 회원이 일본 방재서적 등을 통해 유용한 대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재빨리 관련 품목들을 찾아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공유해준다. 상호 간의 연대와 합의를 통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규범적 정보를 공유했고, 이는 자아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누그러뜨려 줄 가능성이 크다. 재난 중에는 포실 내의 어느 지역이 많이 흔들렸는지를 실시간 상호공유했다. 회원 아이디어에 행정동이 표기되어있기에 회원이 있는 위치가 자동범주화되어 이번 여진은 북구만 흔들렸는지 남구도 함께 흔들렸는지 공간적 정보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지진 재난에서 이러한 공간정보는 매우 필수적 요소인데, 이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는 곳은 당시 포실이 유일했다. 이는 포실 집단이 행정동 기반으로 범주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즉 매우 구조적으로 이뤄진 집단 특성에 기인한 활약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가 공식적으로 발송되지 않는 미소지진의 경우, 지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곳도 포실이였다. 주변 소음 혹은 바람으로도 흔들림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트라우마를 겪었던 재난민들에게 포실은 안전함을 확인해주는 곳이었다.

지진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자아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포실 지역민들은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구조화된 현실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포실의 규범적 정보는 포실 엄마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포실 회원, 즉 내집단 구성원이 규범적 정보를 제안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회원들이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으로 해당 정보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했을 때, 해당 제안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회원들간의 합의(intra-group consensus)를 통해 이뤄진다. 합의 대신 이견(異見)이 생기면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릴 수 없게 된다. 합의를 통해 검증된(consensually validated) 의견, 즉 일종의 “사회적 템플릿”(Hohman et al., 2017, p. 126)을 획득할 수 있었던 포실은 이러한 소통의 방식으로 강력한 재난 관련 정보를 생산, 유포하게 된다. 인터뷰 응답자들이 포실에서 소위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답변한 것은 당시 포실의 정보 파워를 실감하게 한다. 이는 일상에서 특히 소비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정경제·경영의 주체인 엄마들이 포실에 모여 여러 육아용품을 까다롭게 상호 검증하는 것은 재난 이전부터 빈번한 일이었다. 따라서 포실 회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태도, 의견, 행동 지침을 내적으로 받아들여 수행

하는 것이 정확한 의사결정이라 여긴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제시된 규범적 정보의 유의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민들은 기존의 규범적 정보에서 벗어나는 이견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해당 정보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소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진 재난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따뜻하게 호응해주는 규범적 정보를 제공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와 참여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견을 숨죽게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진앙에 가까웠던 북구의 한 포놀 회원이 “(미소지진 때문에) 방금 흔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요”라는 글을 게시할 경우, 같은 북구 회원의 경우 “맞다” 혹은 “나도 느꼈다”며 호응했다. 반면, 진앙에서 떨어져 있던 남구 회원이 “누워있는데 느끼지 못했다” 혹은 “북구 분들 어떡해요”라고 호응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규범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했다. “느끼지 못했으면 댓글 달지 말라”며 다소 날이 선 북구 회원의 반응도 있었다. 유사하게, 2022년 헌남노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회원들의 경우, 포놀 게시판에 태풍 주제가 아닌 다른 일상 글(학원 문의, 판매 글 등)을 올리는 회원들을 비난했다. 포놀 관리자에게 다른 일상 글을 (일시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공지를 띄우거나, 심지어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다른 회원들이 맛집 탐방이나 어디 놀러 갔다 온 후기 글들은 일시적으로 자제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궁금한 내용까지 게시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정보의 유의점에 대해 추가로 생각해볼 점은 내집단 구성원들의 검증을 통한 상호합의 과정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에 함께 맞서는 가정 내 돌봄 주체들이라는 정체성이 현저한 상황에서 주장이나 의견의 질(quality) 자체보다는 내집단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적 정보가 좀 더 강력하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e.g., Lee, 2008). 정보의 질보다는 정보원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칫 무분별한 동조(mindless conformity)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이견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는 경향성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았던 2018년 김포맘카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일 수 있다. 맘카페의 특성상 회원들의 관여도가 높은 주제들(안전, 환경, 재난 등)의 경우 자칫 일부 회원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집중적인 모성(intensive mothering) 이데올로기(Hays, 1996; 박혜경, 2009)와 맞물려 극단으로 치달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내에서 제시되는 이견이 유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집단 규범에서 이탈한 글을 작성한 회원 스스로가 다른 회원들의 댓글을 통한 비난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글을 자진 삭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시사점 및 저널리즘의 역할 모색

재난정보를 생산, 유통하는데 일종의 대안매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의 부상에서 재난민들의 공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내에서 회원들은 동일한 처지와 목표를 갖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현실의 불확실성을 구조화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의 대부분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기에 누구에게나 해당 정보가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다. 몇몇은 가입 절차 등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중앙·지역언론의 경우 적극적으로 재난민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이러한 제보를 속보 등으로 내보낼 수 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각 주요 행정동마다 신뢰할만한 시민 특파원을 미리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언론사가 주요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에 플레이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핵심 실시간 정보를 취합한 후 속도감 있게 TV 자막 등으로 유통할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기반 소셜미디어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전 사태에는 TV를 볼 수 없기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재난사태에서 전국 각 지역 구석구석의 실시간 정보를 취재하여 유통하는 것은 언론사 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상황(지역, 개인적 처지 등)에 따라 정보 욕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또한 맞춤형으로 모두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중앙언론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일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든 시민들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 정보, 검증된 정보 접근에 대한 불평등 해소 외에 언론보도에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본고에서 강조한 재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아 불확실성이다. 비수도권 재난민들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으나, 수도권 재난민들도 물론 자아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예: 2010년 우면산 산사태). 특히 중앙언론에서 급박한 재난 혹은 느린 재난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해서 보도해주지 않거나, 비호의적으로 보도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재난민들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혹은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라는 자아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배제감(social exclusion)은 재난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에 큰 저해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소수인종 맥락에서 유사한 주장을 탐색한 Saleem et al., 2019 참고).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재난민들이 의미 있는 자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사작성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기상청 (2021). 국내 지진 발생 목록. Retrieved from <https://www.weather.go.kr/plus/eqkvol/domesticlist.jsp>
- 김성균·이정보 (2019). 2016 년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 년 규모 5.4 포항지진의 여진활동 비교. 《지질학회지》, 55권 2호, 207-218.
- 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0). 포항지진과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의존: 포항맘놀이터를 중심으로. 김기흥·김진희·김철식·정채연 편. 『포항지진 그 후: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221-263쪽). 나남.
- 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1). 포스트-지진 재난 상황에서 지역기반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참여.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295-333.
- 김진희·서미혜·김용찬 (2022, 근간). 지진 재난 속 여성 돌봄자들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이용과 연대. 이동후 편. 『디지털 미디어 소비와 젠더』(465-519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 의 전국 및 지역 (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권, 157-208.
- 박동균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권 5호, 241-248.
- 박효민 (2018). 사회조사로 살펴본 포항지진의 트라우마, 《포항지진 1년: 지금도 계속되는 삶의 여진》, 19-36. .포스텍융합문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배문규 (2021, 10, 06).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60600015#c2b>
- 송수진 (2019. 4. 14.). 고성 산불 보도는 ‘강 건너 불구경 저널리즘?’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9593>
- 이은주 (2008). 탈개인화 효과에 관한 사회적 자아정체성 모델: 이론적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1호, 7~31.
- 이화연·윤순진 (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98호, 40-76.
- 차현아 (2019, 04, 05). “산불 재난급, 알티존 해주세요” 강원도 산불 트윗, 18시간 내 100만건 발생.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2266.html](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2266.html)
- 최현주 & 이강형 (2008). 지역 언론학 연구의 동향과 특성: 1960 년~ 2008 년까지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37-67.

한국리서치 (2021, 5, 20). 사회지표: 집단별 갈등인식.

Retrieved from <https://hrcopinon.co.kr/archives/18330>

한선·이오현 (2011). 지역신문 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비판적 연구: 광주지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410-435.

한선·이오현 (2013). 지역방송 프로그램 생산의 제한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광주지역 생산 (자)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4호, 243-268.

Ball-Rokeach, S. J.(1985).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 485-510.

Brewer, M. B.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Campbell, D. T.(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 14-25.

Drury, J.(2018). The role of social identity processes in mass emergency behaviour: An integrative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9, 38-81.

Ellemers, N. (2002). Social identity and relative deprivation. In I. Walker & H. J. Smith (Eds.), *Relative deprivation: Specification, development and integration* (pp. 239-264).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lger, R. & Martin, C.(1986). Relative deprivation and referent cognitions: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531-546.

Fothergill, A.(1996). Gender, risk, and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4, 33-56.

Hamilton, D. L., & Sherman, S. J.(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 336~355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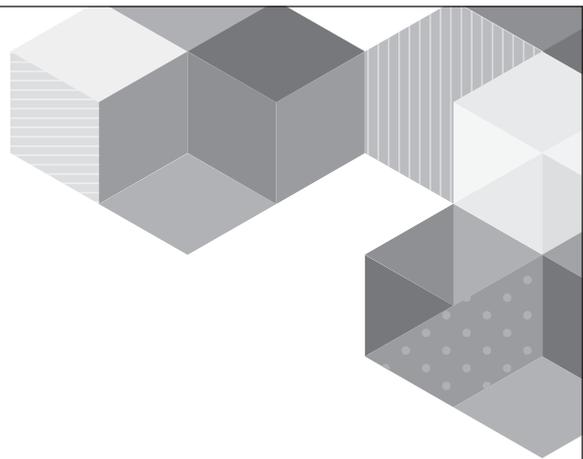
Hogg, M. A.(2007). Uncertainty-identity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9-126.

Hogg, M. A.(2021). Self-uncertainty and group identification: Consequences for social identity, group behavior, intergroup relations, and socie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4, 263-316.

Hohman, Z. P., Gaffney, A. M., & Hogg, M. A. (2017). Who am I if I am not like my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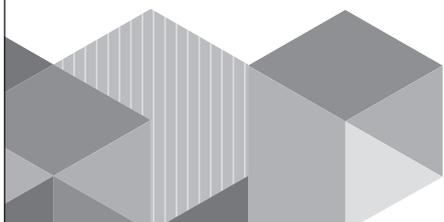
- Self-uncertainty and feeling peripheral in a grou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2, 125-132.
- Kim, Y-C., & Kang, J. (2010). Communication, neighbourhood belonging and household hurricane preparedness. *Disasters*, 34, 470-488.
- Kim, Y-C., & Shin, E. K. (2016). Localized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Seoul's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 81-100.
- Kim, Y-C., Jung, J. Y., Cohen, E. L., & Ball-Rokeach, S. J.(2004). Internet connectednes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2001. *New Media and Society*, 6, 611-631.
- Lee, E. J.(2008). When are strong arguments stronger than weak arguments? Deindividuation effects on message elabor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5, 646-665.
- Palen, L., & Hughes, A. L. (2018). Social media in disaster communication. Handbook of disaster research, 497-518.
- Postmes, T., Spears, R., & Lea, M.(1998). Breaching or building social boundaries? SIDE-eff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689-715.
- Roese, N. J. & Olson, J. M. (1993). The structure of counterfactual though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312-319.
- Saleem, M., Wojcieszak, M. E., Hawkins, I., Li, M., & Ramasubramanian, S. (2019). Social identity threats: How media and discrimination affect Muslim Americans' identification as Americans and trust in the US gover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69(2), 214-236.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Basil Blackwell.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 바람직한 재난위기 관리를 위한 재난정보 생산·유통 방안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





# 바람직한 재난위기 관리를 위한 재난정보 생산·유통 방안<sup>1)</sup> : 재난정보 확산 주체로서의 정부, 언론,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학교)

## 1. 서론

사회적 질병재난으로서의 코로나 팬데믹은 정보생산과 유통, 이용자의 정보 소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AI, 빅테크, 메타버스 등의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레거시 미디어는 소셜 미디어의 허위정보를 문제적 아젠다로 비판하기도 했지만, 관련 허위정보는 팩트체크가 불가능할만큼 급증하였다.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혐오정서가 반영된 정보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도래하였다. 정부, 언론, 시민 모두 코로나19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망원인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가 급증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언론보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다.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2020년 2월23일의 뉴스 트래픽은 185%를, 25일에는 23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20.3.4.).

이후 질병관리청과 언론보도의 팩트체크 등이 이어지면서 인포데믹(Infodemic)시대 저널리즘의 역할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정보 확산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 비판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COVID-19뿐 아니라 자연재해 관련 재난정보의 정확성과 보도방식에 대한 문제 역시 아직 미결인 상태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중의 불안감을 소재로 삼아 클릭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이 아닌 상황을 공유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2020년 1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방진복 차림의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쫓는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이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곧 유튜버 네명의 상황극임이 드러났다(영남일보, 2020.1.30.).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던 당시 유튜버가 해운대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다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되

1) 이 논문은 연구가 진행중인 논문입니다. 인용시에는 저자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happydayljin@naver.com

기도 했다(헤럴드경제.2022.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서의 재난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오랫동안 언론이 수행해왔었다. 언론은 대중이 접근할 수 없었던 재난 관련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취재해 상세하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최근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정보를 생산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는 사이 공적 커뮤니케이션, 언론의 역할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Digital News Report 2019)’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플랫폼과 관련한 변화는 유튜브가 뉴스나 시사 정보 이용 채널로 자리잡은 것이다.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한국은 40%로, 조사 대상 38개국의 평균 26%에 비해 14%나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튜브상에서 뉴스를 시청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 이용률이 고르게 나타났다(Digital News Report,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2; 재인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주요 정보와 뉴스를 얻는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매체로 평가받기도 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재난뉴스 정보 역시, 뉴스 채널을 따로 선택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 유튜브 플랫폼의 뉴스를 더 많이 선호하게 만들었고, 제휴 심사를 받은 기성 언론 중심의 포털과는 다른 성격의 뉴스를 소비하게 만들고 있다. 이용자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수 있어서 유튜브에서 사실상 언론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나 논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들 중에는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과 음모론을 담은 콘텐츠를 양산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금준경, 2018, 50쪽).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사실에 기반한 정보생산에 많은 노력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에 비해, 개인 채널에서 생산되는 편향적이고 문제적 정보가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뉴스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혹은 뉴스정보를 회피하는 시민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많은 뉴스정보를 소비하는 환경은 아직 유효하다. 주류 언론 모두 유튜브 플랫폼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보 활용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보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미디어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 2. 재난 위기 상황과 허위정보

### 1) 재난 위기 관리의 중요성과 허위정보의 위험성

재난(Disaster)이라는 어원은 파괴, 분리 혹은 불일치라는 뜻을 지닌 Dia와 라틴어로 별(Star)이라는 의미의 Aster가 합성된 된 개념으로 별의 파괴 혹은 별의 분리, 행성배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불행이라는 뜻을 지닌다(송윤석 외, 2009).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의 개념을 “통상 사망과 상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차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정부와 민간 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하는 사건”(김부영, 2012)을 의미하며, 국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의 완화, 준비계획, 대응 및 복구와 관련한 정책적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현석환, 2015).

〈표 1〉 재난의 유형과 정의

재난분류	내용	법안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하고 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예측불가능성과 신속성, 즉각적이고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재난은 공인된 기관으로서 정부의 재난 위기관리 프로세스뿐 아니라 언론보도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참여와 정보 공유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역시 재난 위기 관리와 정보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통령 선거, 정치적 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심증

이나 정치적 믿음에 기반한 정보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과정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는 사이, 소셜 미디어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사실로 인지되고, 사회를 위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허위정보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지칭하는 말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오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구분된다. 오정보(misinformation)는 실수 혹은 착오 그리고 정보의 단어의 합성어로 고의성이 없는 정보를 뜻한다. 이와는 반대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특정 행위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퍼뜨리는 허위정보를 뜻한다(성옥제, 정은진, 2020).<sup>2)</sup> 이충환(2013)은 가짜뉴스 대부분이 기성 언론의 저널리즘 양식을 답습하며, 내용 구성에서도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는데, 가짜뉴스는 생산과 배포에 의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인된 그리고 서열화된 취재원의 인용, 인용부호의 적절한 사용, 뉴스의 제시형태, 뉴스의 서술 형식 등의 저널리즘 기법을 차용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김미경(2019)은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가 기존 언론보다 더 일탈성을 돋보이게 구성해, 진짜 뉴스보다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보았다. 표시영과 정지영(2020)은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고, 미등록 비언론사인 동시에 허위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생산 및 배포하는 저널리즘 양식의 가짜뉴스가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게 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코로나팬데믹이 심각하던 시기, 유럽연합 집행연합회는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고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며, 회원국 및 EU 수준의 전례없는 조치로 전염병에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류현숙·김경우, 2019). COVID-19의 확산은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고, 허위정보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영국에서는 5G로 COVID-19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허위정보로 인해 시민들이 기지국을 불태우고 작업 도중에 관련 기술자가 공격/위협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sup>3)</sup>

2) 하지만 COVID-19 관련 가짜뉴스나 유명 유튜브가 생산하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문제적 정보의 위협이 심해지면서 다른 학술적 연구나 비판적 기사, EU나 미국 정부에서는 오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허위정보라 지칭해 사용하고자 한다.

3) 러시아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고 "코로나가 바이러스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텔레그램 보안 게시물에 이들이 전자파 방사선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봄, 이와 거의 유사한 게시물이 최근 이탈리아 보건당국과 의사들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방사선 중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닌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최근에는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하며 올린 게시물이 러시아 보건당국에 잘못 유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적어도 2월 말부터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퍼졌고, 짧은 버전의 글은 텔레그램의 안티 백신 및 큐어넌(QAnon) 음모 채널에서 공유됐다.

<https://www.bbc.com/korean/news-56758716>

〈그림 1〉 불타는 기지국

출처: Getty Images<sup>4)</sup>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소셜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이용자들이 정보 생산, 유통에서 기존에 없었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재난 관련 정보 공유와 확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도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Huang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이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11명과 인터뷰를 통해 테러와 같은 재난이나 위기 발생 시 정보 공유의 행위에서 근접성(proximity)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근접성의 개념은 물리적 근접성(physical proximity)과 감정적 근접성(emotional proximity)을 포괄하는데, 물리적 거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과 개인 간 물리적 거리의 근접성을 의미하는 반면 감정적 거리는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연계나 유대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난이나 위기 시 정보 공유 행위에서 물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감정 근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2013년 보스턴 사태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상황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실시간 공유되는 재난 현장 정보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소셜 미디어 상 정보가 종종 불확실하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위기 시 더 넓은 커뮤니티로 정보가 퍼져나가고 공동의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재난 및 위기 발생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온라인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온라인상에서 공동의 인식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잘못된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진아·이종임·홍주현(2021)의 ‘북한 원전 보도’ 연구에서도 언론사의 쟁점 보도가 보수 종편의 의혹 제기와 개인 유튜브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면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은 크게 확산하였고, 특히 유튜브 개인 채널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분법적이고 정파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https://blog.naver.com/tech-plus/221926471654>

이와 같이 재난으로부터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정보가 최근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의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언론보도가 현장상황에 따라 정보의 공백을 떨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허위 정보가 채우기 쉬운 것이 현재 미디어 생태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확하지 않은 재난 관련 정보가 생산·유통될 여지가 많다(Schneider, 1995, 51)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국내외 허위정보 대응사례

1960년 피터 웨이슨(Peter Wason)은 실험을 통해 인간이 추론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논리적, 인지적 오류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현상을 설명한다. 확증편향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매킨타이어, 2019, 64 쪽). 니커슨(Nickerson)은 확증편향을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1998: 175). 이 부적절한 인지 강화 행위는 사전적 믿음 혹은 지식(prior belief or knowledge)에 의해 발생한다. 모든 경우에서 확증편향은 지식이나 믿음을 판단적인 정보 처리와 분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Stanovich and West, 2007: 226). 정보처리에 있어서 확증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이 단순히 기존의 신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모순되는 수정들에 저항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Ting and Song, 2017: 22).

EU의 경우 COVID-19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 유럽과 세계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확보, 2) 경제적 조치, 3) 공중보건, 4) 국경과 이동성, 5) 허위정보퇴치로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EU의 허위정보 퇴치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만하다.

EU집행위원회는 믿을 수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고 사용자의 인지도를 높이며,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거짓 정보와 관련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EU는 관련 허위정보퇴치사이트<sup>5)</sup>를 구축해 허위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정보를 함께 공지하고 있다. 2022년 10월 13일 기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주로 공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14,433개의 허위정보를 공개하고 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허위정보 매뉴얼에는 다양한 키워드별 허위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10월 13일 기준 COVID-19의 허위정보는 319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의 오보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도구와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5) <https://euvsdisinfo.eu/>

〈그림 2〉 EUvsDisinfo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UvsDisinfo'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there is a promotional banner for 'DISINFORMATION REVIEW' featuring a truck on a cliff and a 'Subscribe to the DISINFO REVIEW'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DISINFORMATION DATABASE' and 'DISINFORMATION CASES ABOUT UKRAINE'. It includes a search bar with filters for date, language, country/region, and cases per page. Below the search bar, it shows '319 results for "COVID-19"'. A table lists several cases with columns for DATE, TITLE, OUTLETS, and COUNTRY.

DATE	TITLE	OUTLETS	COUNTRY
04.08.2022	COVID-19 pandemic development suggests its deliberate nature and US involvement	tigrm.ru, iz.ru, RBC.ru, RIA, aif.ru	US
13.03.2022	COVID-19 is one of the pathogens prepared in US biolabs for biological warfare	fondsk.ru	US, Ukraine
09.03.2022	The West is the real enemy of Russia, Ukraine and Poland	pl.sputniknews.com	Ukraine, Russia, Poland, US, UK
09.02.2022	Globalists and Judeo-Masons artificially create new strains of coronavirus to reduce the population	livenews.am	Armenia
04.02.2022	Insurance companies do not pay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eath of persons vaccinated against COVID-19	majdurecic.md, fondsk.ru	Moldova, France, US
06.12.2021	The COVID-19 vaccine has provoked more illness and deaths than the virus itself	pauleraigroberts.com, Geopolitica.ru	US, Canada,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은 2019년 3월 신설된 신속경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EU기관 및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G7 및 NATO와 같은 국제협력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2020년 6월 10일, EU집행위원회는 EU의 인접 지역 및 전 세계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언론기관 및 언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력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유럽민주주의행동계획(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두 개의 새로운 기준을 통해 허위정보에 맞서고 계속 증가하는 위협과 조작에 적응하고 규범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uvsdisinfo.eu/; 정세원, 2021).

영국 정부의 미디어 감시팀(Media Monitoring Unit: MMU)이 방송이나 지면 미디어의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상의 뉴스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초기단계에 사실에 기반을 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sup>6)</sup>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도 허위정보에 대한 점검과 삭제 요청을 통해 허위정보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2월19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총 3120건에 달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이 중 게시물이 코로나19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사람들에게

6) 워싱턴포스트는 팩트체킹 전문 칼럼인 <팩트체커(The Fact Checker)>라는 코너를 개설함, 2003년 12월 등장한 팩트체커닷오르그(FactCheck.org)는 CNN 기자 출신 브룩스 잭슨이 참여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대 아넨버그 공공정책연구소(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개설 정재철(2022).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2022 선거 국면을 허위 정보 극복 기회로, <신문과방송>.

계 혼란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삭제 조치된 사례가 2654건(85%)에 달했다. 인터넷사업자 등에게 요청해 삭제한 케이스가 2544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삭제한 케이스가 110건이었다(경향신문, 2022.2.9.).<sup>7)</sup>

### 3. 재난 위기 정보의 확산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

홍주현(2018)은 재난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셜 미디어가 위기 정보의 확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포항 지진 관련 이슈의 경우,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정보확산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공식적인 정보로서의 정부의 정보가 집중도는 높았지만, 확산성은 낮았고, 비공식적 채널로서의 개인 채널이 확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는 이슈의 집중도, 확산성이 높아 '주도적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튜브는 언론사의 뉴스가 재확산되는 공식 채널과 비공식 내철의 역할을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COVID-19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는 공공 보건 기관과 정부 이해관계자(즉, 행위자)가 질병 확산을 막는 상황, 위험 및 개인 보호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대유행의 발병 초기에 두드러졌던 위험 관련 정보 관련 불충분하고 일관되지 않은 정보 공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Wang, Yan, Hao, Haiyan & Platt, Lisa Sundahl, 2021).

디지털 기술은 뉴스 정보가 생산, 유통, 매개되고, 매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다시 저장, 가공되는 과정을 새롭게 구조화한다. 재난 정보를 보도하는 뉴스 역시 데이터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기자 혹은 뉴스룸의 판단은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뉴스 생산과정이 지니는 관성, 새로운 환경과 조직 내의 이슈를 통합하려는 타협과 조정, 신규 기자들의 소통과정에서의 수용과 저항을 통해 새로운 뉴스 가치와 양식을 오랜시간 축적해온 기존의 뉴스 생산방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율이 이뤄

7)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는 언론의 역할과 정보 생산방식, 시민참여와 뉴스윤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정보생산주체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시민/이용자는 가짜뉴스의 증가, 재난 위기 관리 대응의 문제처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직면해있고, 때로는 스스로 뉴스정보를 공유하고 서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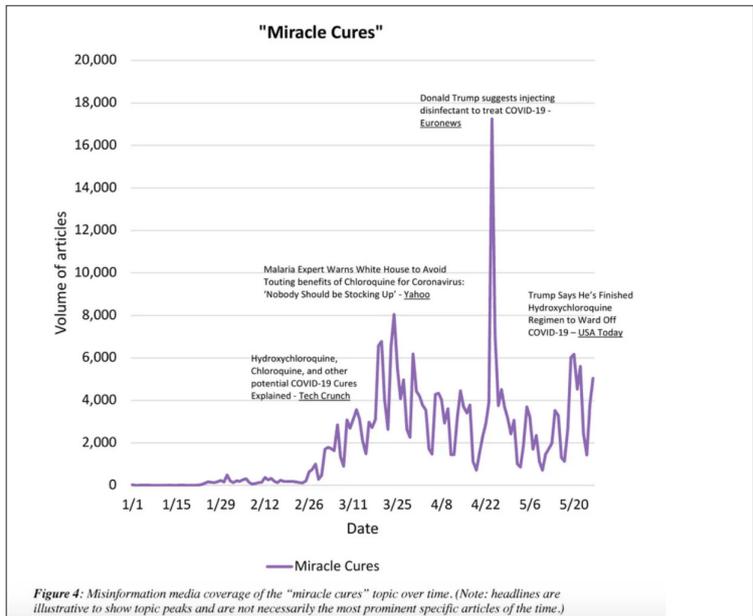
2014.4.16.	세월호 참사
2017.11.15.	포항지진
2019.4.4.	고성-속초 산불
2020.1.	COVID-19
2022.8.8.	강남 침수 피해
2022.9.5.	태풍 힌남노-포항 경주 피해
2022.9.16.	태풍 난마돌-부산 해운대

질 수 밖에 없다(이소은·박찬경, 2022).

2016년 미국의 선거 직후 <버즈피드>에는 페이스북에서 생산·공유된 가짜뉴스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나아가 NBC나 <허핑턴포스트>보다 더 많은 독자 참여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제출되었다(Silveman, 2016.11.16.).

코넬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OVID-19의 확산과 수많은 사망자를 낸 데에는 허위정보의 영향 역시 컸다고 봤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허위정보 확산에 문제적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1월1일부터 5월 26일까지 COVID-19의 허위정보가 포함된 전통적 언론매체에 게시된 천백만개 이상의 기사를 조사했다. 이 중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담긴 백만개가 넘는 기사를 선정했고 그 중 약 38%는 도널드 트럼프 관련 주장 혹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경향을 언급한 기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발언이 갖는 영향력을 언급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의 발언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언급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후 실제로 이 소독제를 주입한 사망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포데믹(Infodemic)의 가장 큰 동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Dylan Scott, 2020.10.5.).

<그림 3> COVID-19 Infodemic



출처: Sarah Evanega, Mark Lynas, Jordan Adams & Karinne Smolenyak(2020). CORONAVIRUS MISINFORMATION: Quantifying sources and themes in the COVID-19 'infodemic'<sup>8)</sup>, Cornell Alliance for Science.

8) <https://allianceforscience.cornell.edu/wp-content/uploads/2020/09/Evanega-et-al-Coronavirus-misinformationFINAL.pdf>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업로드된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이슈를 확산시키는 채널.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동영상을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국내 이용자의 유튜브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유튜브를 사용하고 1인당 월평균 시청시간은 33시간 가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2022.10.12.). 트위터는 유튜브 동영상을 재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용자들이 위기 이슈의 확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오히려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정부와 언론에서도 공식적 채널로서의 유튜브 채널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재난 관련 정보 확산의 '속도성'과 '확산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 이용자의 증가와 정부와 언론도 모두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유튜브는 중요한 정보 생산과 유통, 소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언론보도의 2차 확산은 빈번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루크 구드(Luke Goode, 2005/2015)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상업적 흐름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공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상업적 식민화,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불평등한 디지털 접근권으로서의 디지털 격차, 디지털 공간에서 형성되는 악의적인 대화, 그리고 다양성과 관계 맺기보다 동질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흡수되어 집단 극화를 발생시키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정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비단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로 부상하였다. 때로는 언론이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정보를 뉴스 아젠다로 다루기도 하고, 유튜브의 개인채널들은 전통적 뉴스 채널의 이미지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면서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믿는 '허구의 신뢰'를 형성하기도 한다.

진실성 여부를 분간할 수 없는 정보에 거듭 노출된 경우 해당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진실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라고 설명한다(Dechêne, Stahl, Hansen, & Wänke, 2010; 노성종·최지향·민영, 2017, 105쪽 재인용). 노성종·최지향·민영(2017)은 이러한 '진실 착각 효과'로 인해 한번 믿은 정보는 차후 상당히 신뢰할만한 정보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우며, 허위정보 효과는 매우 지속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마크 안드레예비치(Marc Andrejevic)는 자동화에는 탈사회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속의와 같은 사회적 과정을 기계적 과정으로 대체하려 할 때, 마치 분류와 상관성이 판단과 같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마크 안드레예비치 지음, 이희은 옮김, 2021, 86쪽).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허위 정보의 경우 상관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판본이 된다고 보았다. 안드레예비치는 유튜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알고리즘 기술은 정보를 통해 설명을 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원하는 것이라는 그의 논의는 정확성과 사실성보다 끊임없이 추천되는 디지털 공간의 정보에 계속 노출될 경우, 판단보다는 동원과 감정이 먼저 작동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효과적인 위기관리는 단계별 목표와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Sturges, 1994).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사전징후’, ‘발생’, ‘지속’, ‘합의’, ‘사후평가’ 등의 단계를 따라 2001년 미국 뉴욕 탄저균 테러 및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며 위기와 응급위험 커뮤니케이션 모델(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이하 CERC 모델)을 수립한 바 있다(Reynolds & Seeger, 2005). CERC의 단계적 위기관리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400여 건을 분석한 루(Lu, 2020)의 연구는 발생 단계(1월 21~23일)에 예방과 발생현황에 대한 허위정보가 주를 이루고, 지속 단계(1월 24~27일)에 우한시 봉쇄령 등 중국 정부당국의 대응과 정책에 대한 허위정보가 높은 빈도로 등장했으며, 위기의 고조 단계(1월 27일~2월 3일)에 감염병에 관한 음모론과 감염경로에 관한 허위정보가 가장 많다는 것을 나타냈다(성욱제, 정은진, 2020).

#### 4. 바람직한 재난정보 생산과 위기관리의 구성요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21년 4월 15일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을 발표했다(황용석, 2021.6.30.). 인터넷 플랫폼 역시 허위정보의 주요 유통창구로서, 그간의 문제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정보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들도 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팩트체크를 수행해왔다. 일례로 KBS는 2016년부터 시작한 <팩트체크K>를 통해 COVID-19 관련 가짜뉴스의 진위를 판별해 뉴스로 보도해왔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6년 대선 시기, 미 전역에서 52개의 팩트체크 기관이 활동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취임식 때까지 미국 3대 팩트체커를 비롯한 10개의 팩트체크 기관과 2개의 스페인어 매체가 협업을 시도했다.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WhatsApp) 지원으로, 왓츠앱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다(정재철, 2022.2.9.).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팬데믹은 질병 확산 초반에 우리가 직면했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 언론보도의 팩트체크와 유튜브 채널의 동시 스트리밍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관련 코로나 질병에 대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한 부정적 정보 유통, 이러한 정보소비가 유발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연구결과(설진아·홍주현·이종임, 2021; 이해수, 2020; 노성중·최지향·민영, 2017; Wang, Y., Haiyan, H. & Platt, L. S., 2021)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높지만, 확산성이 낮고,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감은 정보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들의 개인적 수익추구를 위해 활용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생산도 부정적 결과에 작용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고성산불 보도와 가짜뉴스,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보도와 유튜버들의 무리한 생중계 등 재난보도는 위기관리적 측면보다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복구 등의 상황 정보 전달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문제라 할 것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sup>9)</sup> 제40조에는 재해, 재난, 민방위법에 따라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서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을 해야 한다. 현재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모두 유튜브 채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각 방송사별 뉴스 관련 채널은 여러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각 방송사의 대표적 뉴스 채널의 구독자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각 방송사별 유튜브 채널과 구독자수(2022년 10월 13일 기준)

채널/유튜브 구독자수	유튜브 채널
KBS(190만명)	 <p><b>KBS News</b> 구독자 190만명 · 동영상 222,296개 현재, 어디서나 KBS 뉴스.</p>
SBS(296만명) 스브스뉴스(81만명) 비디오머그(110만명)*	 <p><b>SBS 뉴스</b> ● 구독자 296만명 · 동영상 146,170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 SBS 뉴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p>  <p><b>스브스뉴스 SUBUSNEWS</b> 구독자 81만명 · 동영상 3,099개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p>  <p><b>비디오머그 - VIDEOMUG</b> ● 구독자 118만명 · 동영상 5,792개 비디오머그는 국내외 다양한 뉴스와 이슈를 골라찍은 영상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No.1 소셜 플랫폼입니다.</p>
MBC(269만명) 엠빅뉴스(100만명)	 <p><b>MBCNEWS</b> 구독자 269만명 · 동영상 158,434개 M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항상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MBC 뉴스입니다.</p>  <p><b>엠빅뉴스</b> 구독자 100만명 · 동영상 4,779개 뉴스보다 친절하고 공익보다 열거하는 새 손 안의 세상살이 가이드북 엠빅 mbignews@mbc.co.kr</p>
YTN(357만명)	 <p><b>YTN</b> ● 구독자 357만명 · 동영상 681,082개 24시간 방송되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 YTN 공식채널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gt; 구독하기: <a href="http://go.ytvb02z.com">http://go.ytvb02z.com</a> YTN 기사검색 &gt;</p>
연합뉴스(110만명)	 <p><b>연합뉴스TV</b> ● 구독자 110만명 · 동영상 407,130개 대한민국 뉴스의 시간, 24시간 뉴스 채널 연합뉴스TV 실시간 뉴스 생방송, 생방송 뉴스의 현장음(LIVE)로 시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 &gt;</p>

\* 한 구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구독할 수 있음을 고려해 숫자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각 방송사에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지만, 허위정보를 유통시키는 개

9)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InfoP.do?efYd=20211209&lsiSeq=232553#0000>



〈그림 6〉 ③ 고성산불(검색기간: 2019-2022)



유튜브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와텐호퍼, 와텐호퍼와 쉐(Watenhofer, Watenhofer & Zhu, 2012)는 유튜브가 다양한 동영상의 확산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라면서 동영상 저자의 명성이 높을수록 이 저자의 콘텐츠도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즉 유튜브 동영상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이용자들의 동영상 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보도(정보)의 경우, 기자는 뉴스 아이템으로 보도 가능성을 고려해 재난정보를 바라보고, 시청자들은 시각적 정보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뉴스 채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많은 이용자(시청자)가 재난 정보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중이다. 많은 이용자의 관심은 곧 빠른 제보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sup>13)</sup>

김춘식·홍주현(2019)은 유튜브 채널의 뉴스 생산 과정이 유튜브에서 생산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뉴스 생산 과정을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로 구분해 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했다. 언론사 채널과 달리 유튜브 개인 채널은 게이트키퍼나 팩트체크 같은 조직 차원의 뉴스 아이템 선정 과정이 없고, 개인 운영자가 아이템 선정과 메시지 작성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뉴스 생산 과정의 차이는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정보 생산자의 정체성을 주목하기도 했다. 또한 유튜브 허위정보의 경우, 최초로 생산하고 유포한 것은 보수 성향 개인 유튜버지만, 이 정보가 널리 퍼져나간 데는 YTN, JTBC 등 주요 기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존 언론이 개인 유튜버가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하는 것은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더 확산하는 역할로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을

13)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좀 더 전략적이고 검증시스템이 더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 언론사에서 생산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구성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의적 편집이 이뤄지곤 했다(설진아·홍주현·이종임, 2021). 유튜브 플랫폼의 수많은 채널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구독자수를 늘리거나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재난의 예측불가능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를 인지한 기존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 활용방식으로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KBS는 재난보도의 정보전달이라는 ‘속보성’보다 정보의 ‘정확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도의 속보성에 집중했고 당시 취재팀에게도 적극적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세월호 참사 보도이후 재난 보도 관련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조직내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본다. 조직 주도보다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기자 개인’의 취재 역량과 자율성에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2013년 Digital First라는 구호를 통해 KBS 뉴스 정보 생산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다른 방송사의 재난방송 속보성과 물량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주관방송사로서 편성된 시간대의 뉴스정보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 디지털 정보 생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뉴스 생산의 프로세스와 재난정보를 구성하는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시민/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속성은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분위기는 2014년 세월호 보도에서의 언론보도의 문제뿐 아니라 2019년 고성산불 보도에서의 문제도 작용하였다.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국가재난사태’급 대형화제가 발생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미흡한 재난방송으로 지역주민과 시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산불발생 당일, 밤 10시 MBC는 수목드라마 <더 뱅커>를, KBS 1TV는 다큐멘터리 <시민의 탄생>을 정규 편성했던 그대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실시간 뉴스 속보를 기다렸던 재난 지역 주민과 시청자들은 연합뉴스TV, YTN 등 뉴스 전문 채널에 의존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재 상황과 대피 정보 등을 확인해야했다(경향신문, 2019.4.5.).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재난의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 분산방식은 지휘체계의 혼선,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의 약화, 전문성의 결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장비의 손실 및 비효율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지휘체계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가지고와 국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측불가능했던 재난이 발생했을때, 언론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유튜브

14) KBS 재난보도 담당자와 재난정보 생산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전략에 대해 2022년 10월 6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브와 같은 플랫폼이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하지만, 재난 지역의 상황을 빠르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유튜브 채널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재난 보도에서 여러번 비판을 받았던 지상파 방송사 중 KBS 통합뉴스룸의 중요 과제는 철저한 사실 검증, 지역 의제 공론장, 국제뉴스 취재시스템(미디어스, 2022.7.21.)<sup>15)</sup>였다. 통합뉴스룸 국장의 이러한 설명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고려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대안마련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3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우고,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전문채널'을 신설, 전국 1만명 '시민안전통신원' 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 공공정보 등 각종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재난방송 확대' 등 6개 항목을 발표했다.<sup>16)</sup>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산불 보도에 대한 KBS의 문제적 보도를 계기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즉각적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존의 다른 채널과 차이를 가질만큼의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sup>17)</sup> 또한 많은 언론사들도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채널을 운영하며 시청자 제보 등 정보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sup>18)</sup>

## 5. 결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벤클러, 패리스, 로버츠(Benkler, Faris & Roberts, 2018)는 대선 기간 4만 개 이상의 온라인 매체가 보도한 400만 개의 정치 관련 기사에 대한 하이퍼링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6년 미국 대선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양산하는 주된 주체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였다. 이들은 여타 기성 언론이 형성하는 정보 생태계와는 분리된 채 독립적인 극우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다(최지향, 2022.2.9.). 극우 미디어 생태계에서 운영자로 문제를 일으켰던 알렉스 존스(Alex Jones)에 대한 최근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극우주의자이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을 가한 알렉스 존스(Alex Jones)는 한때 15억뷰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12일 법원 배심원단은 2012

1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84>

16) <https://kcc.go.kr/user.do>

17) 그 외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확보하려는 사례로 KBS의 세이프K 채널이 존재한다.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별 채널구성을 통해 유튜브 이용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진(2021.3.22.). "무겁기만 한 재난방송은 안녕"...KBS 유튜브 채널 '세이프K',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48900005>

18) "KBS 카톡 뉴스채널과 KBS 재난 채널 이용자수는 37만명으로 카톡 뉴스채널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BS 재난센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기도 하다. 시민제보영상은 하루에 몇백건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별작업은 대략적으로 11명의 인력이 24시간 접수된 제보 영상을 선별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 선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은 아니다."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

년 샌디훅 총기난사 참사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알렉스 존스에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1조 3천8백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CNN, 2022.10.12.). 유튜브에서 음모론으로 구독자 240만 명에 15억뷰로 유명세를 얻었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시켜왔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인포위스 등의 게시물과 팟캐스트를 삭제했다. 그리고 오늘날 배상판결을 고려한다면, 허위정보의 온상인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이용자들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유튜브 플랫폼에 머무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시사인의 <2022년 신뢰하는 매체 조사 결과>에서도 유튜브에 대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몇 년 간 매체 신뢰도 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유튜브가 사라졌고, 포털 사이트도 높은 순위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유튜브가 1위, 네이버가 2위였던 것에 비하면, 변화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22년 조사결과에서는 레거시 미디어가 신뢰하는 매체 조사 결과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냈지만, 전년대비 신뢰도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인, 2022.9.16.).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스스로, 그리고 레거시미디어조차도 정확한 정보선별이 어려웠던 COVID-19를 경험한 후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허위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선별 정책과 시민참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COVID-19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정보 대응' (tackling coronavirus disinformation) 사이트를 구축하고, 일련의 원칙<sup>19)</sup> 중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그 외에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허위정보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주요 참여자들과 협력하는 것,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 어려운 상황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민주적 토론을 보장하는 것,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등(European Commission, 2020)은 우리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sup>20)</sup>

19) Coronavirus: EU strengthens action to tackle disinformation

[https://ec.europa.eu/search/?QueryText=https%3A%2F%2Fec.europa.eu%2Finfo%2Flive-work-travel-eu%2Fcoronavirus-response%2Ffighting-disinformation%2Ftackling-coronavirus-disinformation\\_e&op=Search&swlang=en&form\\_build\\_id=form-uLTDW5ZDC8v\\_GbOWXU8AIB2S9CaKXXzR6IAh8nmGss&form\\_id=nexiteuropa\\_europa\\_search\\_search\\_form](https://ec.europa.eu/search/?QueryText=https%3A%2F%2Fec.europa.eu%2Finfo%2Flive-work-travel-eu%2Fcoronavirus-response%2Ffighting-disinformation%2Ftackling-coronavirus-disinformation_e&op=Search&swlang=en&form_build_id=form-uLTDW5ZDC8v_GbOWXU8AIB2S9CaKXXzR6IAh8nmGss&form_id=nexiteuropa_europa_search_search_form)

20) 성육제와 정은진(2020)은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일부러 기사화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이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재난위기정보 관리에서 정보 생산유통의 주체 참여 주체들의 역할론을 정리하는데, 정부나 보건당국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형사적 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정보유통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뉴스미디어는 정보 검증과 전달의 역할을, 온라인 플랫폼은 권위 있는 정보는 연결하고 허위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시민은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의 역할을 제안한다. 성육제·정은진(2020),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 및 대응방안 분석, <방송문화연구>, 제32권 2호, 39쪽 참고.

## 참고문헌

- 금준경 (2018). 유튜브와 온라인 저널리즘. <언론중재>, 149호, 48-57.
- 김대은 (2020).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사회적 재난보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 김미경 (2019). 뉴스신뢰도, 뉴스관여도와 확증편향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와 팩트뉴스 수용자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52호, 5-48.
- 김부영 (2012).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식·홍주현 (2019). 유튜브 공간에서 ‘가짜뉴스의 뉴스화’: <고성산불> 관련 정치적 의혹 제기과 청와대 반응 사례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2호, 403-440.
- 노성종·최지향·민영 (2017). ‘가짜뉴스효과’의 조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가짜뉴스효과’의 견인 및 견제 요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4호.
- 류현숙·김경우 (2019).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선정수 (2022). 코로나19의 교훈, 인포데믹을 예방하려면-위기 소통 컨트롤 타워 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시민의 언어’로 전달해야, <신문과 방송>, 6월호.
- 설진아, 이종임, 홍주현 (2021). 유튜브 뉴스채널의 ‘북한원전건설의혹’ 관련보도연구: 언론사 채널과 개인 채널 뉴스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3), 334-371.
- 성육제·정은진 (2020).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의 유형 및 대응방안 분석, <방송문화연구>, 제32권 2호, 7-54.
- 송윤석 외 (2009). 『재난관리론』, 동화기술.
- 유승현·정영주 (2020). 뉴스 유통의 변동과 지상파 뉴스 콘텐츠의 대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 오세욱·송해엽 (2019).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소은·박찬경 (2021). 뉴스의 데이터화와 저널리즘 실천: 충돌 혹은 괴리, <언론과 사회>, 30권 1호, 5-50.
- 이충환 (2013). 『저널리즘에서 사실성』,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해수 (2020). 인포데믹이라는 기술미디어 전염병: 정보 과식과 정보 편식의 병리들, <문화과학>, 167-183.
- 표시영·정지영 (2020).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7(4), 25-62.
- 하주용·홍원식·유수정 (2019). <소셜 플랫폼의 부상과 동영상 뉴스 생산 전략>,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석환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0권 제1

호, 39-56.

홍종윤 (2020, 11, 26), <코로나19 관련 국내 유통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평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홍주현 (2018). 재난 발생 시 SNS를 통해 확산된 재난 이슈 네트워크 분석:유튜브의 정보 종류 및 이슈의 집중도·확산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호 3권,

홍주현·설진아·이종임 (2021).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중국 관련 허위정보 확산에 관한 연구: 확산주체와 정보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652-666.

정세원. EU의 COVID19 대응 사례연구: 허위정보 대응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9권 2호,

정재철 (2022.2.9.).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2022 선거 국면을 허위 정보 극복 기회로, <신문과 방송>.

정정주·김민정·박한우 (2019). “유튜브 상의 허위정보 소비실태 및 확산 매커니즘 생태계 연구: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2권 제2호, 105-138.

최지향 (2022.2.9.).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 정보에 속았는가: 허위 정보 생태계 속 보도 윤리 확립 필요, <신문과방송>.

Andrejevic, M. (2020). *Authorized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Routledge. 이희은 옮김(2021). <미디어 알고리즘의 욕망>, 컬처룩.

J. Shin, L. Jian, K. Driscoll, and P. Bar.(2018). “The diffusion of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Temporal pattern, message, and sour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83, pp. 24-31.

Jarvis, J. (2006). *Networked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www.buzzmachine.com/2006/6/guzzmachine.com/2006>

Darcy, O.(2022.10.12.). Alex Jones faces a reckoning, but the style of politics he popularized is here to stay, CNN.

<https://edition.cnn.com/2022/10/12/media/alex-jones-reliable-sources/index.html>

Goode, L. (2005). Jürgen Habermas: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Pluto Press. 조항제 옮김 (2015). 『민주주의와 공론장: 위르겐 하버마스』, 컬처룩.

Schneider, S. K. (1995). *Flirting with disaster: Public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ME Sharpe.

Wang, Y, Haiyan. H. & Platt, L. S. (2021). Examining risk and crisis communications of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during early-stages of COVID-19 on Twitt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 Scott, D. (2020.10.5.). Trump has been the biggest source of Covid-19 misinformation, study finds, vox.com.  
<https://www.vox.com/coronavirus-covid19/21497221/donald-trump-covid-19-coronavirus-news-misinformation-study>
- Sarah Evanega, Mark Lynas, Jordan Adams & Karinne Smolenyak(2020). CORONAVIRUS MISINFORMATION: Quantifying sources and themes in the COVID-19 ‘infodemic’, Cornell Alliance for Science.  
<https://allianceforscience.cornell.edu/wp-content/uploads/2020/09/Evanega-et-al-Coronavirus-misinformationFINAL.pdf>
- Vosoughi, S., Roy, D. & Aral, S.,(2018).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 (6380), 1146~1151.
- Whitney Phillips, The Oxygen of Amplification: Better Practices for Reporting on Extremists, Antagonists, and Manipulators Online, 박상현 옮김(2019).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kpf.or.kr/front/research/trendDetail.do?seq=588401>
- 김영화(2022.9.16). [신뢰도 조사] 신뢰하는 언론매체 ‘없거나 모르겠다’,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7>
- 김정진(2021.3.22.). “무겁기만 한 재난방송은 안녕”…KBS 유튜브 채널 ‘세이프K’,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1048900005>
- 김지혜(2019.4.5.). 누리집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904051244001>
- 민경영(2020.3.4.). 코로나19로 뉴스 소비 2.3배 ↑ ... ‘이슈 피로감’ 조짐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3/227616/>
- 이정현(2022.10.12.). “유튜브, 한국인 10명 중 8명 사용…1인당 월평균 33시간 시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69200017>
- 유경선(2022.2.9.). 백신 맞고 5G 통신 영향 받으면 사망?…코로나19 장기화에 진화하는 허위정보,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2091627001>
- 정우태(2020.1.20.). 유튜브.SNS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 ‘특수’ 노리는 인플루언서 기승,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30010004934>

헤럴드경제(2022.9.6).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집채만한 파도 10m 쓸려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06000038>

방송통신위원회

<https://kcc.go.kr/user.do>

KBS 재난포털

<https://d.kbs.co.kr/>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